

전북대 학교기업 에코하우징·사회사가온우드

수출유망 목재제품 발굴대회 '대상'

박희준 교수 연구팀 개발 '흡음 및 난연성 목재 내장재 제조기술'

전북대학교 학교기업 에코하우징과 전북 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이자 전북대 사회사인 (주)가온우드(진안소재)가 5일 한국임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2016 수출유망 목재제품 발굴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신림정장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세계를 사로잡을 나무로 만든 우수제품 찾기'라는 슬로건으로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우수 목재제품을 홍보하고 세계 시장 수출 활로를 개척함으로써 국내 목재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가 함께 올해 처음 실시한 것.

대상에 선정된 목재제품은 전북대 박희준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흡음 및 난연성 목질 내장재 제조기술로 최근 국가 신기술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학교기업 에코하우징과 가온우드는 앞으로 3년 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해외박람회 참가비, 수출상품화사업, 수출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산림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의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 응모 시 우선 선발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박희준 교수(주거환경학과)는 "이번 수상으로 우리가 개발한 우수한 기술



전북대학교 학교기업 에코하우징과 전북 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이자 전북대 사회사인 (주)가온우드(진안소재)가 5일 한국임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2016 수출유망 목재제품 발굴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신림정장상)을 공동 수상했다.

력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며 "원자재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

고 경쟁력 있는 수출목제품 제조 기업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민형기자

전주시, 단독주택 주거복지서비스 '해피하우스' 지원

15개동에서 중앙동·호성동·송천1·2동 추가 19개동으로 확대

전주시가 주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에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해피하우스 사업의 서비스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전국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이 찾아가 도움을 주는 주택 보수·점검 서비스와 주민참여 마을개선 사업 등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포함하는 사업이다.

시는 기존 4개 센터 15개동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지난 7월부터 중앙동과 호성동, 송천·2동을 추가해 총

19개동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원도심 주변의 주택재개발사업 지연 및 주택 재개발예정구역 해제 속 출몰 기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중앙동 등 4개 지역에 해피하우스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원도심 보존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해피하우스 사업을 통해 총 1388세대에 전기누전, 수도누수, 주방싱크대, 환기시설 등 전기 및 건축·살미 분야 총 24개 항목의 주택유지관리 불편사항 1만1106

건에 대한 무상지원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시는 주민참여 마을개선 사업을 통해 7개동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담장도색, 담장벽화 조성, 공한지 정비 등을 시행했으며, 주택 맞춤형 리폼 교육, 무료 건축 설계 및 상담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물론 무료 공구대여 서비스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주시 해피하우스는 아파트에 비해 거주 편의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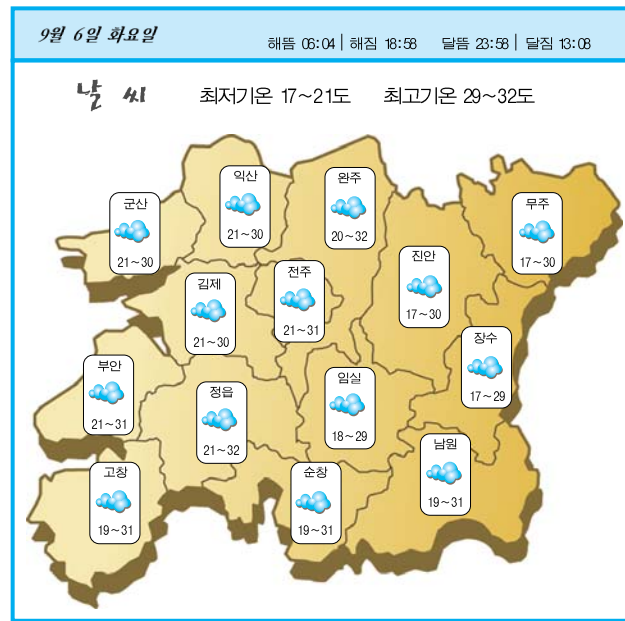
나이가 단독주택지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아름답고 활력 있는 건강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주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청약금 상환과 주민공동체 복원을 도모하는 지역 밀착형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후센터와 원안센터, 인후센터, 팔복센터 등 총 4개의 해피하우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지역은 노송동, 한우마을, 진북동, 원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앙동, 인후·2동, 우애동, 금암·2동, 호성동, 덕진동,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송천·2동 등 19개 지역이다.

/김영재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대 태권도학과, 각종 전국대회 상위권 차지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가 출전한는 대회마다 승승장구하며 전국 최고의 태권도 명문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전주대 태권도학과는 최근 두 달 새 '대학 선수권 대회'와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통령기 전국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등에서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지난 1일 막을 내린 '제39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전국태권도대회'에서 전주대는 5명의 선수가 최상위권에 올랐다. 전주대는 남자부에서 양용환(+87kg급) 1위, 장형호(-74kg급) 2위, 김주형(-58kg급) 3위를, 여자부는 유경민(-73kg급), 이수국(-67kg급) 선수가 3위에 입상했다.

특히 2학년 유경민 선수는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여성가족부장관

기 전국여성태권도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주대는 팀대항 종합경연대회에서도 전국 최고의 실력을 뽐내고 있다.

학생들로 구성된 'The Tenor Live' 팀은 8월 6일 국가원에서 열린 2016 세계태권도한마당 종합경연(시니어부)에서 9.00평점을 획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개인종합격과 부문에서는 조은선(3학년)학생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승하며 사상 첫 대회 2연패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최광근 태권도학과장은 "학생들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8시간씩 매트 위를 뛰면서 구슬땀을 흘린 결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태권도 성자가 있는 전북을 대표하는 학교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엘리트 태권도의 산실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원광대, 2년 연속 장기현장실습 선도대학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2016 장기현장실습 선도대학 재인증 평가' 결과 장기현장실습 선도대학으로 재인증을 받았다.

지난달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재인증 평가에서 호남·제주권 장기현장실습 선도대학 재인증 평가 대상으로 심사를 거친 원광대는 2년 연속 장기현장실습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원광대는 장기현장실습에 해당하는 '전공현장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지

정해 운영하는 한편 타 대학보다 월등한 이수 학생 수를 배출했다.

기존 계획대비 달성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실습 참여 학생의 취업연계 비중 및 유급과 축진 건수를 명확히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원광대 송문규 LINC사업단장은 "2년 연속 장기현장실습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만큼 원광대에 장기현장실습을 통한 산학교육의 '소명'이 주어졌 것으로 여기고,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라북도 |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